

0.4

YIYUN KANG

20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코엑스 아티움 K pop square] 예술치유 프로젝트

강이연

작품명

0.4

2022년 1월 1일 - 3월 31일

작품내용

몇 년 전, 고작 1.5라는 작은 숫자에 지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망연자실함을 기억한다.

‘1.5’가 의미하는 바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넘지 않아야만 지구 생태계 삶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최근 단 10년(2011~2021) 간 지구의 지표면 온도는 1850~1900년 표면온도에 비해 1.09도 상승했다. 현재 인류 삶의 패턴이 과감히 변하지 않는다면, 2040년에 1.5도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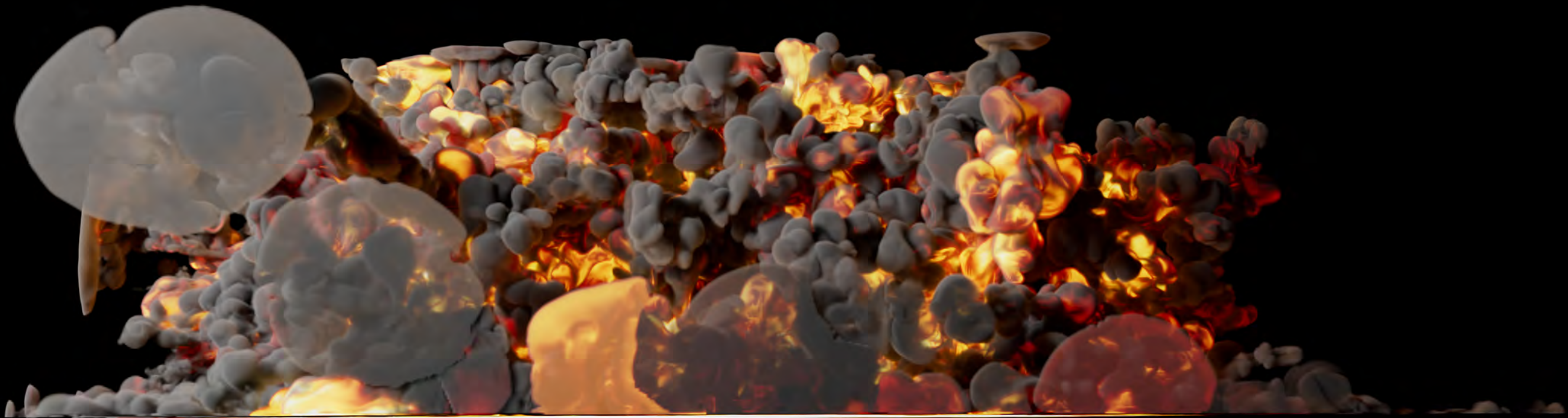
지난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는 각 사회가 지닌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인종·계층적 문제점들을 첨예하게 표출했을 뿐 아니라, 인류와 지구 간의 불편한 관계들을 가차없이 드러냈다. 인류의 진보는 자연의 상실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자연의 동의 없는 희생을 딛고 우리는 팽창해 왔음을. 예견된 이 사태를 오랜시간 동안 묵인한 결과로, 우리는 유례없는 ‘인간 대 자연’의 대재앙의 시대를 맞이했다. 코로나는 그 재앙의 시대의 서막일 뿐이다. 이미 인류는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대규모 산불, 생태계 파괴, 바이러스 창궐, 식량 위기, 해수면 상승을 초래했다. 기존 생태계의 붕괴와 환경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기후 위기는 다가오는 수십년 안에 지구 생태계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1.5도가 넘으면, 세계 인구 절반의 삶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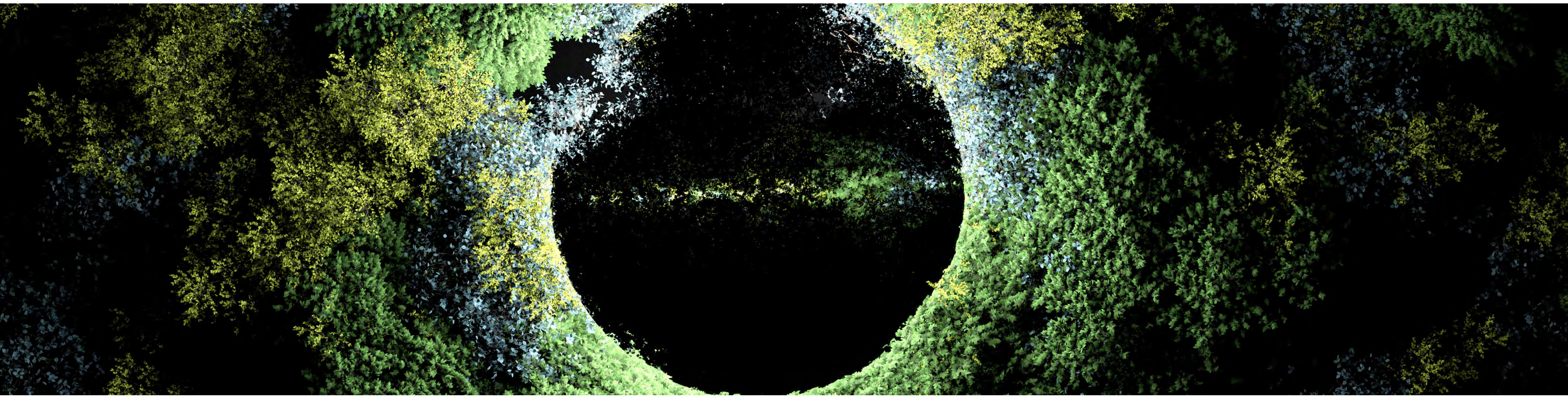
인간 체온도 정상에서 1도를 넘으면 신체에 문제가 생기고, 1.5도를 넘으면 고열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지구도 마찬가지이다. 본인이 망연자실 했던 건, Digital data나, bitcoin 주가처럼 끝없이 팽창하는 인공적 숫자들에 현혹된 채 인간과 자연이 그 무엇보다도 닮아있다는 그 명료한 진실을 까맣게 잊고, 무한 팽창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생명의 논리로 human과 non-human을 다시 연결하고 scaling 하여, 인간과 환경의 상호연결성을 이해하는 것이 절실하다. 우리에게 남은 건 고작 0.4만큼이다.

본인의 작업 **0.4**는 신비한 생명력을 지닌 자연의 모습과 ‘1.5’ 이후를 상징하는 불편한 모습을 그린다. 작업은 ‘warming stripe’을 거대한 화면 가득 채우며 끝이 난다. 이는 우리의 현주소를 상기한다. 인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0.4가 함축하는 의미를 헤아려 보는 것이 인류를 치유하고, 자연을 치유하고, 우리의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예술이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더라도, 우리를 이끄는 영감이 될 수는 있다고 믿는다. 2022년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는 이 프로젝트가 우리를 포함하는 biosphere의 치유를 향한 아주 작은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Warming stripes(가열화 줄무늬)는 영국의 리딩대(University of Reading) 기후과학자 에드 호킨스(Ed Hawkins)가 개발한 줄무늬 패턴으로 세로 막대 1개가 1년을 나타낸다. 온도가 하락할수록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상승할수록 진한 빨간색으로 표현한다. Warming Stripe는 매우 간결하고 명료하게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가열화 되고있는 지구에 대한 심각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달한다.





SIMULATION IMAGES

























STUDIO YIYUN KANG 2021